

제7차 ASEAN+3 정상회의 참석 귀국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시아 13개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서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경제와 안보과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기조발언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협력 비전과 사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서울에서 '동아시아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큰 공감과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역내 국가간의 개발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교역규모 2조 5천억 달러, 인구 19억의 거대 시장입니다. 최근 이 지역 국가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틀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의미가 컸던 자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이번 회담에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은 3국간의 협력을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의 원칙과 분야를 명시한 공동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한·중·일 3국은 안보와 무역, 투자, 금융, IT, 환경, 초국가 범죄 등 열네 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중·일 3자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중·일 3국 관계사에 처음 있는 일로서 3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SEAN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한 것도 이번 방문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 열 개 나라로 구성된 ASEAN은 우리 교역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통상·투자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ASEAN 내 후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1천명 규모의 '개발협력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ASEAN 정상들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감사의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역·투자 자

유화를 비롯한 한·ASEAN간의 경제·통상 관계 확대가 상호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ASEAN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경제 긴밀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자고 제의했고, ASEAN 정상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찬동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ASEAN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의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SEAN 각국의 경제계 지도자들이 모인 '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ASEAN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의 또 하나 목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문 기간 동안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2차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자회의 못지 않게 주력한 것은 각 정상과의 개별회담이었습니다. 중국·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인도 등 7개국 정상들과 진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상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이들 나라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포들을 만나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웃나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